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9호 【루게 제24742호】 주제103(2014)년 11월 25일 (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미제승냥이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야수성과 악랄성, 잔인성을 보여주는 축도이며 력사의 고발장인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기남 동지, 한광상 동지, 리재일 동지, 김여정 동지, 박명철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천만군민을 반미대결전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기 위해 신천박물관을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1998년 11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이곳을 찾으시였던 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신천박물관의 본관과 사백어머니묘, 백둘어린이묘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수십년 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해온 미제살인귀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후퇴시기 2개월도 못되는 기간에 신천군에서만도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000여명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수적인 방법으로 무참히 학살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미제살인귀들은 남프로소를 가리지 않고 집단적으로 불태워죽이고 생매장하였으며 굶겨죽이고 얼기어죽이였을 뿐 아니라 어린이들을 어머니 품에서 강제로 빼내어 화학창고에 가둔 다음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죽였다고, 사람들의 머리에 못을 박고 사지를 찢어 학살하는 귀족같은 만행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고 준철히 말씀하시였다.



미제가 신천땅에서 감행한 대학살만행은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인간살육을 도락으로 삼는 식인종이며 살인마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은 신천을 비롯한 공화국북반부의 수많은 지역들에서 미제살인귀들과 계급적원수들이 감행한 야수적만행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족음이라고 하시면서 적에 대한 털끝만 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혁명을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혁명을 망쳐먹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미제는 침략으로 생겨나고 침략과 약탈로 배집을 늘구며 비대해진 침략의 원흉이고 흉물이라고 하시면서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성은 영원히 변하

지 않는다고, 오늘날에 와서 달라졌다면 저들의 침략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수법이 더욱 음흉하고 교활해진것이라고 하시면서 현시기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활적인 문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착취와 억압을 받아보지 못하고 전쟁의 엄혹한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주력으로 등장한 오늘날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한시도 늦출수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 계급교양을 더욱 심화시키고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떠나서 사람들의 자주적삶과 인간의 존엄, 가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승패, 사회주의의 승패는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수호하고 조선혁명의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투철한 반제반미계급의식과 주적관을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조직들과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계급교양을 중시하는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계급교양을 강화하자면 신천박물관을 비롯한 전국도처에 있는 계급교양거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천박물관을 계급교양거점의 본보기로 될수 있게 새로 다시 건설하며 박물관에 자료와 증거물들을 학술적으로 잘 전시해야 한다고, 참관에 편리하게 모든 시설들을 원만히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신천박물관에 대한 참관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원수들의 만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밤나무골 화학창고와 사백어머니묘, 백둘어린이묘앞에서 진행되는 복수결의모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참관자들이 원수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을 깊이 새기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계급교양을 잘하자면 강사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강사들은 누가 보던 말건, 알아주건말건 계급교양의 전초선을 지켜가는 우리 당의 핵심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에게 계급의식을 심어주는 직업적인 혁명가들이라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날 원한의 밤나무골 화학창고에서 살아나 수 십년세월을 하루같이 계급교양진지를 지키고있는 추상원동무와 23년간 강사로 시업하고있는 박영숙동무를 만나시고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천박물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거운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다수확의 비결은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 데 있다

운전근 운하협동농장 일꾼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어머수령넘어서 창조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전봉부화하신 주체농법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리 식 농법이며 그 어떤 불리한 자연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는 우월한 과학농법, 집약농법이다.

1만 2,000t의 기름생산으로 높은 지력

주체농법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지력을 높이는 데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품종과 재배방법, 재배기술을 도입하고 많은 비료를 줌으로써도 양양한 결실을 거둘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운하협동농장에서 지난 기간 질 좋은 기름을 들뜬 내어 드넓은 밭을 옥답으로 전환시킨 사실이 그에 대한 교훈적인 사례로 된다.

10여년전 농장의 정보당 알곡생산수준은 6t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한 구상과 크나큰 은정속에 농장의 드넓은 토지가 번듯하게 정리되었다. 모든 논이 기계화조건으로 전환된 현실은 일꾼들로 하여금 이런 결실을 굳히게 하였다.

6t수준에 머물러있을수는 없다. 끝까지 방도를 찾아 땅의 은덕에 높은 알곡중산성 과로 보급하였다.

일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토지정리된 농촌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생생이 드러난 조건에 맞게 질 좋은 기름을 많이 내며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일때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서 그 방도를 찾았다. 그러자면 추수를 대체적으로 하여 기름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였다.

당시 농장 추수기지의 연간기름생산량은 2,000t에 불과하였다. 추수작업반과 비육분조들의 생산건조를 작고 낮았으며 집집마다 추수도 적었다. 일꾼들은 이런 조건을 놓고 타산해보았다. 결과 농장 정보당 20t의 질 좋은 기름을 내어줄 수 있는 추수기지를 5~6배로 확장하여야 한다는 답이 나왔다. 일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먹이밭이 얼마 안되는 운하에서 무슨 수로 그 많은 집집마다 기름을 해결할까 고민했다.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이으로써 올해 알곡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추수를 발전시켜 지력을 훨씬 높이고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지난 시기 알곡 정보당 8t 내지 못하던 운하협동농장이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맞기 위해 수행한 성과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지으면 그 어떤 조건에서도 높은 수확을 거둘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면 주체농법관철에서 이곳 일꾼들이 틀어쥐고 고리는 무엇인가.

1만 2,000t의 기름생산으로 높은 지력

멀리에서 수십㎞의 흙을 운반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연유와 노력이 엄청났다. 이것은 농장의 조건에서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일꾼들은 무조건 제법으로 제법 길 작으로 토른을 거둔다. 그 과정에 공사를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되 단계별로 공사가 끝나면 차례로 땅을 개간하여 먹이작물을 재배할 목표가 세워졌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감람원 흙을 가지고 재배를 쌓는 방법을 찾아내어 많은 연유와 노력을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그후 민간의 준비를 갖추고 펼쳐나선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첫째로 5정보의 땅을 개간한데 이어 두번째 단에 계획된 면적을 먹이작물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쏠모없이 버림받던 땅이 먹이생산에서 큰 몫을 하게 되었다.

일꾼들은 이미 있던 10여정보의 먹이밭에서 두벌, 세벌농사를 하기 위한 투쟁의 불꽃을 지펴올렸다. 이른봄철에 먹이작물을 심어 줄기와 잎을 거두어들이는 다음 강냉이를 두줄 모아심고 그어이에 붙나새를, 그후에는 가을남새를 심으면서 부침방의 이용을 최대로 높여 먹이문제를 적지 않게 해결하였다. 여기서 강냉이를 수선산하하면서 정보당 먹이작물의 잎과 줄기는 20t, 남새는 50~60t 생산할수 있었다.

사람들의 눈발에 있던 습지에 3정보의 못을 만들어 한해에 수천의 큰뽕물꿀을 거두어줄 수 있는 비육분조들의 생산건조를, 추수작업반은 물론 비육분조들에 가공설비를 갖춘 것까지 아울러 여러가지 근거리 방법을 받아들여 먹이생산량을 높였는데, 3원교잡에 의한 새끼생산체계를 세워 우량 종태지마리수를 짧은 기간에 비약적으로

늘린것도 이곳 일꾼들이 추수를 해와 지력을 높일수 있다는 주체농법의 요구를 일관하게 관철한 결과에 이룩된 성과이다.

결과 농장에서는 몇년사이 해마다 900마리, 닭, 오리, 새끼 수천마리를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연간 질 좋은 기름 1만 2,000t 생산목표를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해에 100여의 고기와 6만개의 알을 생산하여 농장원들의 생활이 윤택해져 갔다. 또한 한해에 새끼돼지 2,000여마리를 생산하여 세대에 나누어줄수있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고기와 5,000여의 기름을 생산할수 있었다.

가름머미와 샅머미였다. 고려형순환 생산체계가 큰 은을 내어 알곡 정보당 생산량은 6t에서 7t로 뛰어올랐다.

성공의 기쁨을 맛볼수록 더욱 심신을 가지고 분발하게 되는 법이다.

일꾼들은 알곡 정보당 10t 목표를 내걸고 추수기지에서 나오는 기름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에 달려들었다. 그중의 하나가 휴보산비료생산이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다. 추수기지에서 나오는 기름을 체로 쳐서 보드라운것만을 리용하고 하니 품질이 좋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주목적인 날달릴기름 하면 나오는 보드라운 것들이었다. 이것이 휴보산비료로서는 더없이 좋았다. 일꾼들은 보드라운 날달릴기름을 집집순우리에서 밟혀내고 잘 섞인 후 휴보산비료를 생산하여 눈에 내도록 하였다. 이때에도 단면에 받아놓은 보드라운 것들이 아니라 청해는 정보당 0.3~0.5를 내어 농장원들이 그 효과성을 알게 하였다. 휴보산비료를 낸 포전과 그렇지 못한 포전에 현저한 수확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농장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휴보산비료 생산에 열매를 맺어마다 생산량을 높였다. 이와 함께 람조류생물활성화비 70t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포전에 내기 위한 사업도 적극 벌여나갔다. 이것이 알곡 정보당 생산량을 높일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되었다.

10여년전 2,000t에 불과했던 기름이 나오던 추수기지에서 올해는 1만 2,000t의 질 좋은 기름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추수를 대체적으로 하여 지력을 높인 이 농장의 경험은 조건이 좋은 단위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나 능히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가 물에 잠겨 아지들이 죽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씨뿌리기를 일반방보다 늦게 하므로 논벼생육 기일을 원만히 보장하지 못하여 수확을 더 높일수 없었다. 일반방보다 경우는 모가 포전에 모하일이 적지 않았으며 이미 모판에서 친 생산성이 높은 아지들이 포전에 나가서 모살기전에 대부분 죽고 새 아지들이 나오기때문에 정보당 수확이 높지 못했었다.

일꾼들은 여기로부터 이런 결론을 찾았다. 생육기일을 원만히 보장하고 모판에서 친 아지들이 포전에 나가서도 제구실을 할 수 있게 튼튼히 기르는데 총연월도가 있다. 판리위원장과 기사장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과학연구기관으로 달려갔다. 연구사들을 만나 파전에 씨뿌리기를 종전보다 일찍 하면 생육기일을 원만히 보장할뿐 아니라 아지들을 튼튼히 키워 눈에 나가서도 죽지 않을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우기 지력에 따라 모판 평당 40~60포기에 포기당 1대씩 내면 아지들을 많이 치기때문에 수확고를 높일수 있다는 사실이 공식을 반력 들게 하였다.

과적어 명백해진 심의는 법이다. 일꾼들은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이 방법을 시험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달려들었다.

여기서 일꾼들이 놓치지 않은 것은 농장의 실정을 잘 타산하여 두가지 방법으로 시험하도록 한 것이다. 즉 온실과 야외포전에 모를 길러 매 작업반에서 5정보씩 시험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이렇게 하여야 모든 작업반 초급일꾼들과 농장원들이 그 우월성을 영농방법을 과학하고 심신을 가질수 있기때문이었다.

온실인 경우는 2월 20일경 씨를 뿌려 3일까지 모를 기른 다음 야외포면에 옮겨 90일 동안 키웠다. 이것을 포기당 대수와 평당 포기수를 서로 다르게 정하여 포전에 내었다. 제2작업반에서는 온실이 부족한 조건에 맞게 야외에 밭상태로 만든 모판에서 모를 길러 눈에 내도록 하였다. 3월 15일경에 씨를 뿌린 다음 박막을 두껍게 하여 70일경에 모를 길러 온실에서 기른 것과 같은 방법으로 소독처리를 하였다.

가을의 결실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일꾼들은 작업반들을 돌아다니며 이론론을 받아들이는 정형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른모를 받아들이는 포전에서 1~2t 증가되었다. 재배방법에 따라서도 수확고차가 있었다. 포기당 1대씩 낸 포전과 2대씩 낸 포전을 대비한 결과 1대씩 냈을 때 수확고가 높았다. 또한 지력이 낮은 포전에는 모를 평당 60포기, 중간정도에는 50포기, 높은 포전에는 40포기를 심었을 때 수확고가 제일 높았다. 비결은 모판단계에서 친 생산성이 높은 아지들이 포전에 나가서도 죽지 않은데 있었다. 또한 모를 포기당 1대 낼 때 영양분이 잘 보강되고 통풍, 빛조건이 좋아 아지들이 많이 친 결과 목표로 내세웠던 이삭아지수가 확보되었으며 이삭당알수가 늘어난 데 있었다.

좋은 방도도 훌륭한 방법론을 찾아 실현해야 성공하는 법이다. 문제를 이렇게 본 일꾼들은 다음해부터 이 방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일 대담한 목표에 그 방법론을 찾아나갔다.

일꾼들은 작업반장, 기술원들부터 이론론의 재배기술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 하루 작업을 총화하는 시간은 물론 매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작업반들에서는 기술원들이 책임이고 이론론에 의한 소독재배방법의 원리와 지켜야 할 요구를 농장원들에게 알려주도록 하였다.

일꾼들은 한해 농사를 총화하면서 생육 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놓고 다음해 농사대책안을 정확히 세우는 사업도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온실을 새로 두 곳 짓고 야외에서도 재배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나가도록 하였다.

일본새가 혁신적이면 목표도 높아지지만 된다. 일꾼들은 올해 전국농업부문조정대회를 마련해주시고 격려적인 시한을 보내주시었으며 농업을 사회주의수호선의 제 1세대 제 1선참호로 내세워 주신 경에 대한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다짐할 새 거고 90%의 논년적에 받아들일 대담한 작전을 펼쳤다.

여기서 일꾼들이 잘한것은 자기 손으로

직접 이론론을 내어 실천적모범으로 농장원들을 이끈것이다.

지난 5월 중순 일꾼들이 이 목표수행에 달려들었다. 일부 사람들은 시험적으로 성공한것을 놓고 대부분 논년적에 받아들였다가 농사를 마치고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서 선뜻 나서지 않았다.

이때 일꾼들의 결심이 중요하였다. 판리위원장은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알곡 정보당 10t 생산은 먼 앞날의 목표가 아닙니다. 앞선 영농기술도입에서 우리 일꾼들부터 앞장에 서십시오.》

판리위원장, 리당비서는 물론 일꾼들 모두가 포전을 맡아 이론론을 냈다. 그것도 농장원들이 먼저 모를 가져간 후에 남는 것을 지력이 낮은 눈에 내었다. 모가 1대씩 됴침등성껏 못하게 모기가 잘피지 못하게 철저히 보이는 포전을 보여 일부 농장원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농사가 되지 않는다고 혀를 찼다. 모내기를 한 다음 10여일이 지나서부터 하루가 다르게 아지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농장원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종다하는 것을 제논으로 확인하면 대충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모든 농장원들은 심신을 가지고 달려들었다. 자기가 맡은 포전을 잘 가꾸기 위해 김매기, 비료주기 등 과학적으로 해나갔다.

결과를 상상해 초월하였다. 종전에 비해 종자는 13분의 1로, 박막과 노력은 5분의 1로 줄이면서도 정보당 10t의 알곡생산량을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운하리사람모두가 뜻깊은 올해에 농장이 생겨 처음 보는 대풍을 이룩하였다고 자랑 하듯이 하였다.

운하리농사경험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당의 뜻대로 주체농법의 요구를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 다수확의 비결이 있다는 진리를 주고있다.

우리의 모든 농촌들에서 운하리사람들처럼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과학기술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워 주며 양을 원수님께 기름을 들뜬수 있다.

글 본사기자 윤 용 호
사진 본사기자 리 명 제

앞선 영농방법도입으로 연 증인의 돌파구

앞선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것은 주체농법의 중요한 요구이다.

올해 운하리에서 알곡 정보당 수확을 극 높인것은 이론론에 의한 비소독재배방법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안락군 오곡리처럼 정보당 알곡 10t을 생산하려면 어떤 영농방법을 도입해야 하는가? 세해전 판리위원장 정경선동무와 기사장 서광호동무는 이 문제를 놓고 생각을 깊이하였다. 지력도 일정하게 높여주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키운 모를 도입하였지만 7.5t수준에서 더 오르지 못하였



오늘도 맥박치는 남패자회의 정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로 질풍처럼 나아가는 우리 혁명의 거센 전진군에는 그 장엄한 격류를 주도하는 위대한 정신이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이 위대한 정신력으로 우리는 화를 북치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백승만을 명철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승리자의 신심드 높이 자신만만한 투지와 애국의 열정을 활화산같이 총폭발시키고있는 오늘날의 장엄한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패자회의에서 밝히신 투쟁방향을 새로운 신념과 활력이 넘쳐 반이인고 력사적인 진군에 나서던 항일혁명전선들의 백승의 기상 그대로이다.

어느덧 76년이 되었다. 하지만 력사의 남패자는 오늘도 우리 세 세대들에게 백두에 나래지어 백승발사기의 혁명정신이야말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강인한 정신력의 밑뿌리이고 모든 승리의 원천이며 폭풍처럼 전진하는 김정은시대의 영원불멸할 기상이라는 것을 새겨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은 탁월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치가, 강철의 령장이시였을 뿐아니라 신념과 의지의 제일강자, 제일바람직가이시였습니다.》

고난의 행군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는 력사의 나날들을 돌이켜볼수록 겹겹이 싸인 적들의 괴위속에서도 여주작작하게 10여 일간이나 회의를 진행하시던 전민적조선혁명을 일대 양양으로 이끌어올리신 백두산청년장군의 모습이 승엄히 양겨배다.

당시 조선인민혁명군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난국에 처해 있었다.

임제침략군은 후방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명목에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에 한층 박차를 가하였다. 적들은 《문화토벌》의 간판밑에 《귀순공작》도 대대적으로 벌여냈다.

최종목표주의가 빚어낸 열화병정의 후 파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백두산서남부일대에 중장원적의 대병력파 거의 단속으로 맞서지 않았던 안되었다.

이런 속에서 혁명의 운명파 관련된 중

2.5배에 달하는 감자를 가공처리 부 전 감자농마공장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감자가공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부전감자농마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질 좋은 농마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현재 공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5배에 달하는 감자를 가공처리하였다.

이 성과는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인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이 공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더 유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사랑이 깃들어있는 현대적인 공장이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자량과 긍지를 떨치지 않고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열의를 불러일으키면서는 감자재가를 앞두고 농마생산 준비사업에 각별한 힘을 넣었다. 일꾼들은 감자가 들어오는 첫날부터 공장을 만부하로 돌리기 위한 작전을 빈틈없이 하였다.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설비관리이다.

공장에서는 당조치의 지도에 당의 은정이 어린 설비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책임직업에 발휘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년간 수천의 감자농마생산능력을 가진 이 공장은 크게 감자 접수공정, 세척공정, 정제공정, 건조 및 제품포장공정으로 이루어져있다. 원료장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생산공정들은 종합적인 조종계제에 의하여 돌아가게 되어있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뜻깊은 올해에 감자농마생산을 늘리기 위해 생산공정마다에서 높은 책임성과 애국적열의를 발휘 하였다.

자매인 조만호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꾼들은 교대별생산조직을 면밀히 하고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열의를 불러일으키면서는 감자재가를 앞두고 농마생산 준비사업에 각별한 힘을 넣었다. 일꾼들은 감자가 들어오는 첫날부터 공장을 만부하로 돌리기 위한 작전을 빈틈없이 하였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세대는 바뀌어도 백두의 혁명정신은 억만배부를 주고도 샅수 없는 귀중한 승리의 상징으로 천만민민의 심장에 영원히 살아날수 있다.

조선의 혁명가들이라면 누구나 남패자회의의 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을 잊지 말라. 백두의 실한총속에서 높이 날리던 혁명의 붉은기를 번뜩임이 높이 추켜드 시고 최후승리의 그날을 앞당겨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6년 전 우리 수령님 남패자에서 넘칠하시었던 조국번영의 송고한 뜻은 더욱 찬란히 꽃피어갈것이다.

있게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였다.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세척작업반원들은 정보장에서 자기가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감자재작업에서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기계를 돌리고있다.

감자농마생산을 늘이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설비관리이다. 설비관리를 잘 하고있는 공장의 종업원들은 자기 기대에 정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종합조종실의 김홍성, 리동우 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은 기계설비조종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 설비점검보수를 앞세워 생산정확도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나갔다.

가공작업반원들과 포장작업반원들이 설비관리실적자 감자농마생산지라고 하면서 가공 및 포장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앞세우고 기대들을 만나 동시작업반원들이 한류 단단히 하였다.

그러하여 공장에서 생산정확도의 높을높이 짧은 기간에 많은 량의 감자농마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활 연 육



